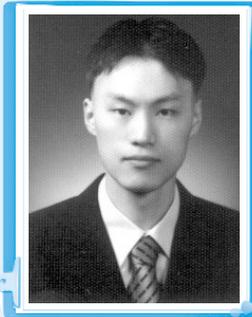




내 삶에 가치 있는 실천

·글_ 최장원 님



2년 전 기억을 되살려보니 마음 뿌듯한 걸 보면 내가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잘 하긴 잘한 모양이다. 별 생각도, 별 두려움도 없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었다. 군대 훈련소에서 처

박하면 피곤해질 것 같아서 부모님 동의 없이 기증하겠다고 얘기했더니 그래도 되겠느냐고 되묻고 또 되묻고 하셨다. 약간은 답답했지만 계속 재 확인을 하는 것이었다. 항상 내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번 기증 건도 내 의사대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지금도 부모님과 우리 가족은 내가 조혈모세포 기증을 한 사실에 대해 모르고 계신다. 그래서 기증을 하고 난 후에 받은 감사패도 아직까지 내 방 책상 한 쪽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로 숨겨져 있다.

음 헌혈을 한 이래로 제대하면서 헌혈증과 문화상품권 모으는 재미로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던 중 골수 기증에 대한 안내문을 보게 되었다. 남을 도와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별다른 생각 없이 골수기증 등록을 하고선 어느 덧 바쁜 직장생활을 하던 2005년 초 어느 날이었을까. 밤 늦게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와보니 내 방 책상 위엔 우편물 한 통이 놓여져 있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순간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우편물에는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안내문 두 장이 있었다.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의의, 나와 유전자가 대부분 일치하는 한 환우가 있고 그 환우를 위해 조혈모세포 기증을 희망한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말 아무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겠다는 설레임에 지체 없이 다음 날 아침 담당 코디네이터였던 이지혜 코디네이터에게 전화를 걸어 기증을 하겠다고 하였다.

이지혜 코디네이터가 회사로 찾아와서 채혈을 하고 앞으로의 진행 절차와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얼마 뒤에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통보와 함께 기증 의사에 대해 재 확인을 하고 이제부터는 환우가 면역을 다 제거하는 치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의사를 철회하면 그 환우는 사망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다. 내 의지는 확고했고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 내 몸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산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으면서 의사선생님께서 칭찬을 하시니 괜히 속쓰러워졌다. 검진 및 1차 채혈 후 신용구 코디네이터로부터 혹시나 모를 빈혈 방지를 위해 철분제를 받았다. 평소 웬만하면 병원도 안가려고 하고 약도 안먹으려 했고, 알약을 먹으면 배가 아팠지만 고분고분 하라는 대로 따라했다. 2주 뒤 2차 채혈을 하였고, 며칠 뒤엔가 입원 당일인 금요일도 평소와 다름 없이 정상 출근하여 일하다 오후에 조기 퇴근을 하여 아산병원 특별실에 입원하였다. 부모님께서는 지방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었고, 회사에도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개인사정으로

부모님께서도 평소에도 내가 헌혈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시면서 반대해오셨기 때문에 괜히 기증 의사를

월요일 하루 연차휴가를 냈었다.

종합병원 특별실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경험해보나 하는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신선하고 굵직굵직하여 먹음직스러운 딸기와 각종 음료수, 과자 등 내가 좋아하는 군것질거리들이 많이 있었다. 밤 12시 넘어서는 음식물 섭취를 하지 말라고 하여 저녁에 케이블TV로 영화를 보면서 딸기랑 음료수 빼놓곤 다 먹었다. 행복했었다.^^ 환자복으로 같이 입고 있던 하였지만 환자가 아니라 놀러 온 기분이었다.

다음 날인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7시에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가는데 겨울인데다 환자복 하나만 달랑 입고 있어서 추위에 벌벌 떨었던 기억이 난다. 수술실에서 조명이 켜지고 그 이후는 기억이 안난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실 침대로 돌아와 있었고 허리 밑에는 모래주머니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인지 무언가 목직한 느낌이 들었다. 허리 통증과 마취가스로 인해 목에 많은 가래가 끼고 아파서 끄끙댔던 기억이 제일 남는다. 간병해주는 아주머니께서 우리 어머니처럼 잘 보살펴주셔서 아직까지도 감사한 마음이 든다. 그 분 아니었으면 정말 고생했을 것이다.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은 손등에 주사가 꽂혀 있었는데 움직이면 주사바늘에 내부가 찢릴 거 같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 것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손을 움직여도 괜찮은 주사바늘이 있었다. 역시 모르면 몸이 고달프다. 한 나절 그렇게 고생하다가 늦은 오후부터는 급속도로 안정이 됐다. 하룻밤 자고 나니 허리가 약간 빠근한 것을 빼고는 거의 정상이 되어 있었다. 회복을 위해 일요일까지 병원에 있다가 월요일 오전에 집에 돌아와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기억난다. 당분간은 야근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려고 하였지만 직장 일이 바쁘다보니 출근 첫 날부

터 거의 매일 야근을 하였다. 허리 통증도 수술 당일 빼고는 없었고, 빠근함도 거의 없었다. 일주일 정도 소독을 하면서 엉덩이에 조혈모세포 채취를 위한 주사바늘 구멍을 바라볼 때 빼고는 내가 수술을 했었다는 사실이 들지 않을 정도였다. 매년 11월에 여는 기증자 감사의 밤에 참석하여 공연과 함께 맛있는 뷔페 음식을 먹으면서 다시 한 번 마음 뿌듯해짐을 느꼈다.^^ 한참을 적다 보니 옆에는 관심 없고 잣밥에만 관심 있는 사람처럼 내가 느껴진다. 물론 내 조혈모세포를 기증 받은 환우가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하고, 현재 어떤 건강 상태로 어떻게 살아갈까도 궁금하다.

몇 달 전에 다시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부터 우편물 한 통을 받았다. 기대를 하고 열었다니 예상대로 기증을 권유하는 내용이었다. 담당 코디네이터에게 차음과 같이 기증의사를 밝히니 또 다시 답답하게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며칠 후 그 환우가 항암치료에 들어가 당분간은 기증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한 번 기증해 본 경험이 있음에도 기꺼이 또 다시 기증의사를 밝힐 수 있었던 것은 잠시 몸이 불편했던 것을 제외하곤 아무런 부작용이나 일상 생활에 차질이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 중 가장 가치 있었던 일을 꼽으라면 나는 주저 없이 한 환우의 송고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조혈모세포 기증을 꼽을 것이다. 부디 많은 분들께서 나의 부족한 글을 보시고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시길 하는 바람이다.



나눔으로 더 큰 행복

· 클 기만선 님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처음 근무한곳은 종합 병원 중환자실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중환자실이면 임종을 맞이하거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를 돌보는 곳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근무하였던 곳은 흉부외과 중환자실로 심장 수술을 주로 하는 곳이었다.

심장 수술은 드라마나 영화 속 소재로도 흔히 사용하듯이 수술로 인한 생존률도 매우 높고 삶의 질을 항상 시키는데 매우 좋은 방법이다. 그 중에서도 심장이식 수술 후 경과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환자들을 보면 의료인으로서 매우 뿌듯함이 느껴졌다.

살아 가면서 살신 성인의 노력을 기하여 신장 기증이나 간 기증을 하는 것은 좀 어렵더라도 기회가 된다면 골수 기증을 하거나 헌혈은 자주 해야겠다고 마음은 먹고 있었지만 의료인인 나도 골수 기증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는 무지한 상태였다.

우연치 않게 종로에서 일을 보고 있던 중 골수 기증을 독려하는 담당자분을 만나게 되었고 별 고민 없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혈액 샘플을 채취하게 되었지만 짧은 기간에 내가 기증하게 되는 기회를 갖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기증등록을 하였다든 사실을 잊고 지내던 중 가족과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낯선 번호가 핸드폰에 남겨져 있었고 통화 결과 골수가 적합한 환자가 있고 기증을 하겠냐는 물음에 너무 손쉽게 답변하였다. 사실 아주 짧은 순간 망설였던 건 사실이었지만 지금은 망설였던 순간이 죄스러울 뿐이다.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더군다나 아픈 환자가 아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픈 아이도 걱정이었지만 뜬 눈으로 맘 졸이고 있을 아이의 엄마를 생각하니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

다행히도 남편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동의하고 시어머니도 너무 당연하게 동의해주셔서 남들이 생각하는 어려움은 없었다. 수술 기간동안 휴가를 허락해주신 직장 동료분과 나를 지지해준 가족들에게 감사할 뿐이다.

사람이 살아 가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나눔이 있지만
 내가 경험한 골수 기증은
 정말 값진 경험이고
 또한 누구와도 공유하고 권하고 싶은 경험이다.

나의 기증으로 인해서 회사 직원들이 기증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 묻거나 또는 수술이 생각보다 힘들지 않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엄마가 한 일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주변 아이들에게 이야기 하고 다녔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기증을 함으로써 오히려 내가 무언가를 얻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혈액암의 대부분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많은 희귀한 질병에 비하여 적합한 골수만 이식하면 매우 긍정적으로 치료가 된다고 알고 있다.

아직도 자신의 몸에 칼을 대는 것이 두렵다거나(사실 골수 채취는 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매우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증 후에 자신의 몸에 어떠한 후유증이 남을 것을 걱정하셔서 망설이시는 분이 있다면 경험자로서 사람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 중 골수를 기증하는 행위는 생각만큼 위험하지도 않고 또한 자신이 무언가를 주는 것 뿐 아니라 기증을 통해서

얻어지는 가슴 한 가득의 뿌듯함이 더욱 값지다는 사실을 꼭 전해주고 싶다.

사람이 살아 가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나눔이 있지만 내가 경험한 골수 기증은 정말 값진 경험이고 또한 누구와도 공유하고 권하고 싶은 경험이다.

만약에 어느 분이 경험하지 못한 낯설음으로 망설이고 있다면 그 망설임을 접고 경험해보라고 적극 권해주고 싶다.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당시 기증을 받은 환자가 ○○살 정도라고 들었으나 건강해졌으면 지금 막 새 학년에 적응하여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적응하느라고 많이 긴장해 있을 것 같다.

우리집 꼬마도 요새 새로운 친구와 선생님 자랑으로 참새처럼 조잘대느라 정신이 없다.

얼굴도 모르지만 그 친구도 항상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서 다시는 아픔이 없기를 항상 기도한다.



잊혀지지 않는 기억

·글_ 최경근 님



기증을 한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기증 후 2번의, '감사의 밤' (11월에 열리는) 행사를 보냈다. 이쉽게도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텔레비전 위에 있는 기념품을 볼 때마다, 그리고 가끔 오는 우편물을 볼 때마다 내가 그런 일을 했었구나 생각은 나지만, 어썩 잊어버리곤 한다.

군대를 제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〇〇년 초여름이었던 것 같다. 신도림역에 있던 헌혈의 집에 들러 성분 헌혈을 하며, 간호선생님과 이런 저런 담소를 나누다가, 우연히 평소 생각하고 있었으나 실행하지 못하고 있던 골수(조혈모세포) 기증을 하게 되었다.

기증신청을 한 후, 금방이라도 연락이 올 것 같은 생각에 몇 날 며칠을 보냈고, 그러다 몇 년이 흘러버렸다.



내 기억 속에서 골수 기증에 관한 사실이 사라져 가던 ○○년 어느 가을, 한 통의 메일이 왔다. 나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대상이 있다는... 메일을 읽으며 만감이 교차하는 느낌을 받았다. 어떻게 말로는 표현하지 못 할 만큼 반가우며 그리고 그 한편에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들, 그러나 너무나 반가움에 흥분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듬해,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 코디네이터가 내가 근무하고 있던 의정부로 와서 몇 가지 검사를 한다며 피를 뽑았다. 그렇게 조혈모세포 기증절차가 시작되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어느 아기와 나의 끊어지지 않을 인연이...

코디네이터와 전화 통화로 검사 일정을 잡고, 검사 당일에는 병원까지 와서 동행하고,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때 나에게 시련이 왔다. 기증을 2달 정도 남기고, 허리 디스크가 왔다. 고민이 생기게 되었다. ‘내 몸이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수술 일정을 연기하자고 할까’ 하는 마음이 앞섰다. 많이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던지, 답답한 마음에 디스크를 치료하던 선생님께 자초지정을 얘기했더니, 괜찮을 거라며, 수술 일정에 맞게 치료를 해 주셨다. 선생님 말대로 기증 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기증 당시에는 표현을 못했지만 지금 내 앞에서 반쪽 역할을 해주고 있는 아내에게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다. 기증 당시 병원에 있는 동안 내 곁에 있어주며, 아무런 말도 없이 날 믿고 반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지만, 그 당시 우리가족 모두 반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입원과 수술, 큰 수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병실까지 찾아와 준 친구 종태, 정호에게 이 기회를 빌어서 얘기하고 싶다. ‘고맙다, 친구야.’

마취에서 눈을 뜨자, 주사 바늘 두 개 찢린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통증, 그러나 실제로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들었던 내용과 텔레비전에서 본 그림과는 많이 달랐다. 그렇게 하루를 꼬박 누워서 휴식을 취하였다. 퇴원을 하고 일산 어머니 댁에서 10일간의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처음 회사에 돌아갔을 때, 모두들 수고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어떤 이는 대단하다고 하며 나를 추켜세우기도 했다. 한 동안 직장 내에서 화제 거리가 되었던 나의 기증사건.

그 일이 있은 후 2년이 흘러간다. 내가 우려했었던 건강상의 문제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고, 지금은 건강하게 축구 동호회 활동도 한다.

내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 지겠지만, 그 때 나의 작은 이쁨으로 이식을 받은 그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 하나만은 영원히 내 가슴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